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종자 산업 현황

경제 이슈: 원화 강세 당분간 지속 가능성 높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슈: 인생 100세 시대와 지역적 삶의 변화

세심록

덕필고 필유린

Book Review

새로운 금융시대 (로버트 실러 著)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2012년 창업 기업 전년대비 3.9만개 감소

-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신생 기업 수는 77만개로 전년대비 3.9만개 감소했고, 2011년 소멸 기업 수는 68.3만개로 3.3만개 증가
 - 신생·소멸률: 2012년 기업의 신생률은 14.3%로 전년대비 1.0%p 감소한 반면, 2011년 소멸률은 12.9%로 1.3%p 증가하여 전체 기업체 수도 감소세가 이어짐
 - 신생기업의 생존률: 신생기업들의 약 50%가 창업 이후 2년 내에 폐업하고 5년 이후에도 생존하는 기업 비중은 29.6%에 불과함
- 최근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도 창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력 약화, 혁신 저하 등으로 연결 될 수 있음

○ 금융 동향: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승세로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

- 세계 금융 시장이 미국 FOMC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발표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며 상승하면서 국내 금융도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외국인 순매수세 유지 등에도 불구하고 12월 11일 3.01%에서 12월 26일 현재 2.89%로 0.12%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연말 달러 결제 수요 증가에도 원-엔 환율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크게 작용하며 12월 11일 1,052.1원에서 12월 26일 현재 1,059.3원으로 7.2원 상승
 - 코스피 지수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발표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며 12월 11일 1,977.9에서 12월 26일 1,999.3로 21.4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12/11	12/26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0	1.5	1.5	1.5	2.3	3.3	-	-
	산업생산(%)	7.2	0.8	0.3	1.2	-1.8	-0.8	0.0	3.0	-
	소비자물가(%)	4.2	2.2	2.4	1.7	1.4	1.1	1.2	0.7	0.9
	실업률(%)	3.4	3.2	3.0	2.8	3.6	3.1	3.0	2.8	2.7
	경상수지(억달러)	54.9	431.4	145.6	149.4	100.2	198.0	190.1	95.1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13	2.88	2.81	2.68	2.67	2.92	3.01	3.01
	원/달러(원)	1,083.2	1,126.8	1,132.9	1,090.3	1,084.8	1,122.8	1,110.8	1,052.1	1,059.3
	코스피지수(P)	2,100.7	1,930.4	1,900.5	1,997.1	2,004.9	1,863.3	1,997.0	1,977.9	1,999.3

주 :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12월 11일은 10월, 12월 26일은 11월 수치임.

□ 산업 이슈: 종자 산업 현황

○ 종자 산업 개요

- (정의) 종자 산업은 종자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과 관련된 산업을 지칭함
 -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孢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의미함
- (중요성) 세계 각국은 글로벌 식량난 대비, 유전자원의 확보 및 보존,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종자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세계 각국은 미래 식량부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종자 산업을 적극 육성
 - 기후 변화, 서식지 훼손 등으로 생물 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유전자원의 확보 및 보존이 중요
 - 최근에는 천연물 신약, 고부가가치 산업소재, 대체 에너지원 등 신성장동력의 기본소재로서의 중요성이 부각

○ 시장 규모

- (세계 시장) 전 세계 종자사업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780억 달러(농산물 부문 449억 달러)로 추정
 -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등이 세계 교역을 주도

<세계 종자시장(농산물) 규모 추이 >

(단위: 억달러, %)

구분	2002	2012	연평균 성장률
유럽	84	99	1.7
아시아·중동	62	149	9.2
북미	63	145	8.8
남미	28	40	3.8
오세아니아	4	5	3.1
아프리카	7	11	4.5
계	247	449	6.2

자료 :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 세계 종자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달러)

순위	수출		순위	수출	
	국가	실적		국가	실적
1	프랑스	16.2	1	미국	9.1
2	네덜란드	14.8	2	독일	7.1
3	미국	13.9	3	프랑스	6.8
4	독일	7.5	4	네덜란드	6.3
5	헝가리	3.9	5	이탈리아	4.2
31	한국	0.4	22	한국	1.0

자료 :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주 : 2012년 기준

- (국내 시장) 국내 농업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종자시장은 정체를 거듭해왔으나,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로열티 시장 확대) 종자 산업은 거대한 로열티 시장을 형성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이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자리매김
- (천연물 신약 개발) 천연물 신약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가가치로 인해 세계적으로 천연물 신의약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
- (고부가가치 산업소재 개발) 자연환경에 최적화된 유전자원은 활용가능성이 무궁하고, 인체 친화적이어서 섬유, 의료, 미용 등 고부가가치의 산업 소재로 활용
- (대체 에너지원 개발)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온실가스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 자원인 동시에 신소재의 원천으로 각광받고 있음

□ 경제 이슈: 원화 강세 당분간 지속 가능성 높다

- 시기별 원/달러 환율 급변동 배경과 시사점¹

○ 원화 강세 시기 구분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인 기간은 1998~2000년, 2004~2007년, 2009~2010년 등 3차례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원화 강세기와 현재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 향후 원화 강세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시기별 원화 강세의 여건 비교

(상대적 경제 펀더멘털 차이) 국내경제는 최근 경기사이클이 수축기에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원화 강세기가 시작된 1998년, 2004년, 2009년은 모두 경기 국면에서 수축기에 속하였으나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확장기까지 이어졌다. 같은 기간 원화 역시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도 동일한 패턴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시경제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된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최근 국내 거시경제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거시경제 건전성이 훼손되었다. 한-미 양국간 정책금리 차이 역시 원화 절상 압력 요인이다. 1차, 2차 원화 강세기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정책금리가 낮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금리 수준을 보여 이자율 측면에서 원화 절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간 물가 차이 역전 현상으로 구매력 측면에서 환율 절상 압력이 높다. 최근 국내의 저물가 현상으로 한국과 미국간 물가차이가 8월 -0.2%p, 9월 -0.4%p, 10월 -0.2%p를 기록하는 등 물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화 수급 요인)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 등 국내로 달러화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2013년에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등 과거 원화 강세기보다 경상수지 측면에서 원화 절상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¹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52호, 2013. 12. 13 “원화 강세 당분간 지속 가능성 높다” 를 요약 정리.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며 외국인 주식자금 역시 2012년부터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비거주자 역외선물환(NDF) 거래는 순매입 포지션에서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되며 원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 요인) 국제 금융시장 리스크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안정적이다. 투자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지수(VIX)와 신용경색을 나타내는 TED스프레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내재변동성 역시 최근에 축소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양적완화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시행으로 본원통화가 급증하였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 시사점

상대적 경제 펀더멘탈 차이, 통화 수급, 국제 금융시장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원화 강세 압력이 과거 보다 높아 당분간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거시경제 건전성 강화를 통해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달러화 수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자금흐름 안정화를 통해 원화 환율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실물경기 회복력 강화를 통해 환율 급변동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전이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수출기업은 대외 경쟁력의 지속적인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위험에 노출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 외 (2072-6211, ck1009@hri.co.kr)

□ 이슈: 인생 100세 시대와 지역적 삶의 변화

□ 요약

인생 100세 시대가 되면 지역이 재구조화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산어촌에서 이미 진행된 변화기도 하다. 노년층의 증가로 예상되는 문제는 농산어촌에서 현재형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로 인한 지역의 재구조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성장을 가정한 저위가정에 따르면, 인구 피라미드는 점차적으로 종형에서 윗부분이 넓은 역삼각형의 항아리구조로 변하게 된다. 노년층의 증가는 지역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의 증가로 이어진다. 노년층의 증가로 노년층이 안게 되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므로, 지자체의 운영구조도 노년층과 관련조직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구조를 지향하게 된다.

인생 100세 시대가 되고 지역에서 복지가 확대되면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주민도 증가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장기 거주 주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인생 100세 시대에는 이 중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노년층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노년층을 존중하는 정책의 추진도 불가피해진다. 노년층의 존중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노년층 중에는 취약계층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여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증가된 노년층의 주도적인 참여를 전제로 지역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운영방식이 변화된다.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역은 삶의 터전으로서 그 의미가 강해지게 된다.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는 지역이 공동체적 삶의 터전으로서 갖는 의미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의 역사적인 유물과 흔적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그것들이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의 역사적 유물과 흔적들은 특히 노년층에게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소재가 되며, 지역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또는 재규정은 지역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억의 공유는 노년층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진행될 때에도 세대 간 소통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어떤 지역이든 자족적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족도가 낮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종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생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이것은 전제와 같은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다양한 조직이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 독점이나 중복이나 빠진 고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역동을 존중하고, 그 역동을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통제하지 않고 그 역동 속에서 공통의 가치 지향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지역이 하나의 단위로써 내적으로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개방적일 것을 요구한다.

I. 지역의 재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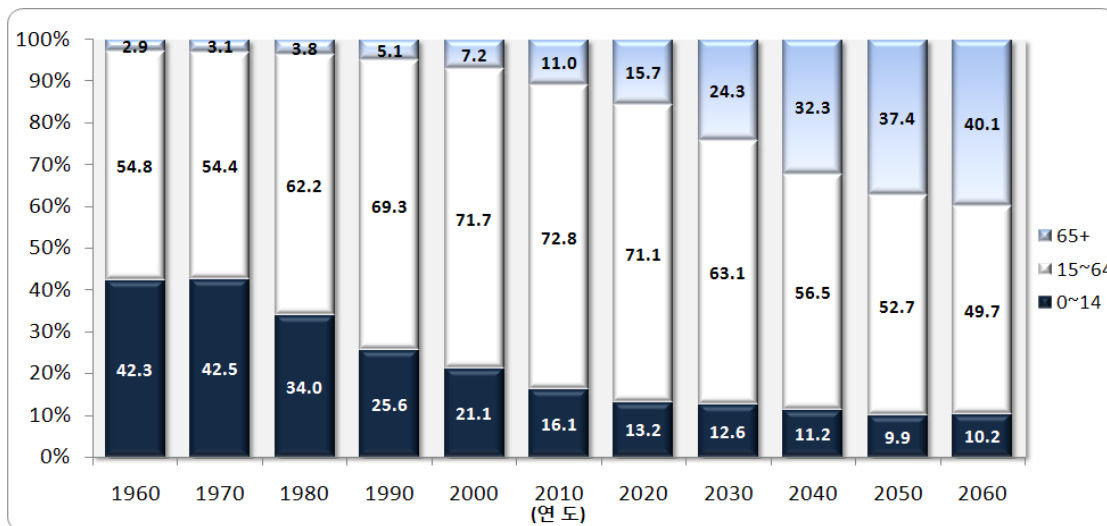
○ 농산어촌에서 시작된 변화

-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지역이 재구조화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농산어촌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함
 - 산업화에 수반된 도시화로 농산어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노년층이 점점 증가되었으며, 현재는 이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는 농산어촌에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조망해 볼 수 있음
 - 노년층의 증가로 예상되는 문제는 농산어촌에서 현재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음

○ 인구구조의 변화

- 양육의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식주의 변화 등으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음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2060)에 의하면, 2010 년에 14 세 이하 인구는 16.1%이고 65 세 이상 인구는 11.0%인 반면, 2060 년에는 14 세 이하 인구가 10.2%로 줄어들고, 65 세 이상 인구가 40.1%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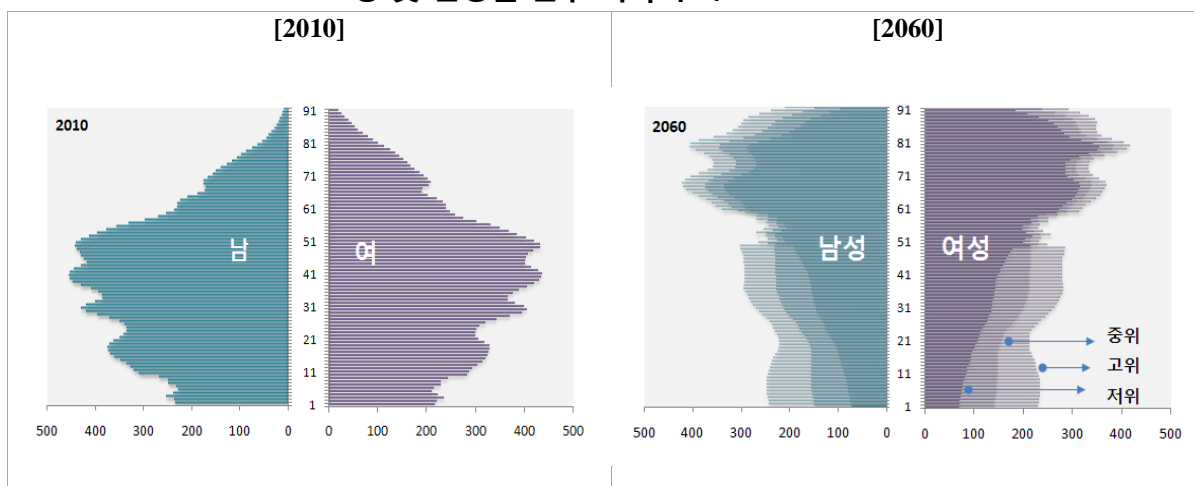
<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0 >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 년~2060 년. 보도자료.

- 이 추계에서 낮은 수준의 인구성장을 가정한 저위가정에 따르면, 인구 피라미드는 점차적으로 종형에서 윗부분이 넓은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하게 됨

< 성 및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2010-2060 >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 년~2060 년. 보도자료.

- 이러한 변화는 국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예견되는 현상이며, 앞서 언급한 농산어촌에서 이미 시작된 현상임

○ 노년 대상의 조직 증가

-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은 복지 분야, 경제 분야, 교육 분야 등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
- 노년층의 질병 문제,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문제 등 복지 분야에서는 노년층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결과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마련됨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 31 조) >

구분	시설명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년층의 질병과 사망에 따르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을 매개로 경제 분야에서 접근해 왔음
- 노년층의 문제는 교육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사였음

- 인생 100 세 시대 논의의 흐름 속에서 지역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도 증가하고 있음
 -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이 증가하고 있음
 -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노년층을 포함시키는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도 증가하고 있음

○ 지역의 운영구조 변화

- 지역에서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노년층이 안고 있는 문제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그 문제를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 나타남
 - 지역에서 노년층 대상 정책이 많아지게 됨
 - 그 정책은 노년층과 관련조직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구조를 지향하게 됨

II. 지역 주민 중심으로의 변화

○ 주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또는 지자체와 지역세력 간 정치적 역학 관계가 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주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적 수준 제고가 지자체의 운영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인생 100 세 시대가 되고 지역에서의 복지가 확대되면 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는 주민도 증가하게 됨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유동하는 인구보다는 오래 정착하고 있는 주민 중심의 정책을 기본 정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

○ 지역에서 좀 더 존중해야 하는 주민

- 향후 젊은층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개연성은 있지만 노년층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배적인 당위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이것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년층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뿐만 아니라 장차 노년층이 될 젊은층의 미래 투자와도 맞물려 있음
 - 노년층에 대한 존중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의미를 갖게 됨

○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 노년층을 포함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지역 전체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도 지자체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임
 -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생산성의 척도가 중시되므로 노년층에는 반드시 취약계층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이 존재하게 됨

-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제는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 비용을 초래하게 됨
-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시혜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수반될 때 의미가 있음

○ 지역의 운영방식 변화

- 지역의 모든 조직은 인생 100 세 시대를 겨냥하여 장기적인 전망과 호흡 속에서 지역의 운영에 참여하게 됨
 - 지자체는 지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수는 없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됨
 - 지역의 유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 역시 인생 100 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의식의 성장을 도외시킬 수 없으며, 지역 전체의 삶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함
 - 인생 100 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년층이 증가하게 되면 지역에서의 모든 활동 및 의사결정에서 노년층의 주도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유도할 수밖에 없음

Ⅲ. 지역의 가치 재발견

○ 삶의 터전

- 지역은 주민에게는 삶의 터전으로서 의미가 있음
 -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됨
 -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되고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사업이 증가할수록 지역 주민들도 지역을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고 지역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됨
 - 이렇게 되면 산업화시대에 희미해졌던 공동체적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이 갖는 의미가 회복될 수 있음

○ 역사적인 유산과 흔적들

-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자체에서 지역의 역사적인 유산과 흔적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자체는 그 동안 잊혀졌거나 평가절하되어 왔던 지역의 역사적인 유산과 흔적들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고 있음

-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자체에서는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지역의 역사적인 유산과 흔적들을 교육의 소재 또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역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

○ 기억의 공유

- 인생 100 세 시대에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됨
 -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은 수많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함
 - 인생 100 세 시대에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적으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짐
 -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이전 세대의 기억을 이후 세대가 공유하는 소통이 중요하며, 지역학은 그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음
 - 개별적으로 삶을 살아내고 이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끼리 공유된 기억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세대 간 어떤 기억을 공유해 나갈 것인가를 지역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수 있음

○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

- 지역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지역 내에서 또는 지역 외부로 향하여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음
 - 지역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삶의 과정에서 남겨놓은 다양한 흔적들은 그 자체로 자원이 될 수 있음
 - 후 세대에게는 전 세대들이 동일한 지역에서 살아낸 삶의 모습과 흔적들이 좋은 참조자료가 됨
 - 한 지역에서는 삶의 동형성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 대처해 온 삶의 모습과 흔적들이 좋은 참조자료가 됨

IV. 지역공동체 지향

○ 지역 내에서의 자족성

- 어떤 지역이든 최소한의 자족적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나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종속성을 피할 수 없음
 - 중앙정부나 타 지역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하지만 그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지역에서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정부나 타 지역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할 경우 그 의존의 한계를 설정하고 상생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지역 내에서의 연계성

- 지역 내의 어떤 조직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서로 연계하는 체제적 사고를 해야 함
 - 지역 내의 어떤 조직도 서로 맞물려 있음
 - 지역 내의 모든 조직은 그 기능과 역할에서 연계와 분담의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계와 분담의 체제 속에서 지역 내의 모든 조직은 상생적 관계를 모색하고 유지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계와 분담의 체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능과 역할의 독점, 기능과 역할의 중복, 기능과 역할에서의 빠진 고리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됨

○ 지역 내에서의 역동성

- 아무리 규모가 작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복잡한 역동이 존재하고, 그 역동은 존중되어야 함
 - 어떤 조직이나 부문도 상대 조직이나 부문에 대해 환경이 되며, 따라서 어떤 조직이나 부문도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음
 -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이 그 조직이나 부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로 인한 역동은 예측하기 어려움
 - 이 역동 자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통의 가치 지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함

○ 지역 내에서의 개방성

- 지역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가 충원되고 있고, 그들에 의해 지역은 변화하고 활력을 가질 수 있음
 - 지역의 미래는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 주민을 하나의 예정된 미래로 몰고 갈 수 없음
 - 지역 주민의 미래 역시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
 - 여기서 지역 주민들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하고, 이 적성과 소질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방적인 체제가 필요함
 - 이 개방성은 더 나아가 지역의 필요에 따라 타 지역과 기능과 역할을 연계하고 분담하는 개방성을 함축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윤여각 (ykyun@knou.ac.kr)

□ 洗心錄

□ 덕필고 필유린

연말이라 이모저모로 바쁘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올해 부족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연말에 하나 더 해야 할 일은 주위를 둘러보는 일이다. 추운 연말에 몸도 마음도 추운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덕을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의 연대와 활력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이다.

연말에 한 지인으로부터 책 선물을 받았는데 『가야금 명인 황병기의 논어 백가락』이었다. 책 이름도 독특하지만, 국악계의 원로이신 황병기 선생께서 논어에 관한 책을 썼다는 점에도 눈길이 갔다. 선생께서 좋아하는 논어 구절 100개를 뽑았고, 그 중심으로 쉽게 풀어 쓴 책이었다. 논어에 관한 수많은 해설서가 있지만, 연세가 80에 가까운 원로 예술인의 눈으로 그리고 인생의 경륜을 덧붙여서 쉽게 풀어 썼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어 해설서들과 차별화된다. 이 책에서도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논어의 이인편 25장에 나오는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은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전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께서 조카 김정옥 교수에게 써 준 친필휘호역시 '덕불고 필유린' 여섯 글자라고 하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던 김활란 총장께서도 덕을 베푸는 넉넉한 삶을 강조하셨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넉넉한 사람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덕을 베푸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신에게도 유리한 일이다. 좁게 보지 않고 더 길고 크게 보는 길이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친구들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적들로부터 얻는다.

- B. 그라시안(1901~1958) : 스페인의 작가, 철학가 -

□ Book Review

- **제목: 새로운 금융시대(Finance and the Good Society)**

- 금융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적인' 과학
- 좋은 사회의 건설을 위해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민주화와 인간화임을 역설

- **저자: 로버트 실러(Robert J. Shiller)**

- 현재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예일 경영대학원 금융학과 교수로 재직
- 1967년 미시간대를 졸업했고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행동경제학의 대부이자 사회심리학을 전통 경제학과 결합시켜 버블 형성과 붕괴, 서브프라임 사태 등 경제현상을 정확히 예측하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주목받고 있음
- 유진 파마 등과 함께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 주요 내용

- 금융시장에서 활약하는 금융관계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소수는 천문학적 액수의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
- 또한 금융 분야는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고, 최상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정보를 감추고픈 유혹이 언제나 존재
- 금융관계자는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이러한 장점은 단점을 상쇄하기에 충분

- 금융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

-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은 실물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준거 기준으로 활용
- 국가 간의 금융적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면, 분쟁 발생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
- 금융이 발달된 경제는 본질적으로 건설적이며 인명의 손실이 따르지 않는 공격성의 배출구를 제공

- 투기적 거품의 생성과 붕괴는 감성에 의존하는 인간의 심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신화, 규제의 실패, 제도의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

- 기업가 정신을 부추기는 야성적 충동은 평상시에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동하지만, 투기적 거품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신봉하였고 대부분의 파생상품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정에 기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
- 정부 당국은 '규제가 많은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증권화된 모기지'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
- 부동산 가격에 대한 파생상품 시장이 존재하여 미래의 주택가격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드러낼 시장이 있었다면 서브프라임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름

- 금융 이론과 금융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차 벌어지고 있음

- 효율적 시장 가설 등 대부분의 금융 이론은 완벽성을 가정하고 인간은 완벽성에 끌리는 경향이 있지만, 금융 이론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실의 금융 세계는 대개 혼란스럽고 비인간적이며 엄청난 위선과 조작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

- 금융 분야에 존재하는 거대한 환상은 경제적 비효율성과 실망을 낳을 수 있음

- 거대한 환상은 '거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착시'를 의미하고, 군사적 정복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리라는 거대한 환상이 세계대전을 유발한 경험이 있음
- 사람들은 금융인들이 부정직한 수단을 써서 인구의 대다수를 경제적으로 예측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고, 이는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금융'자본주의를 통한 '좋은' 사회의 건설이 필요

- 금융자본주의가 가진 혁신의 힘을 제한하기보다는 점점 더 다양화하는 사회계층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활용
-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평등의식과 참여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농지·주택·기업 등 자본 소유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들 덕분
- 실제 살아 숨 쉬는 인간들의 특성과 번덕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경제 전체에도 더 잘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개발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